http://dx.doi.org/10.17232/KSET.33.2.483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017, Vol 33, No 2, pp.483-515

〔Special Session〕

Reflective Practice for Operation Case of Micro-Teaching - Focused on the Self-Consultation of Instruction -

Lee Eun-Taek (Hanyang University)
Shim Q-Jin (Hanyang University)
You Yeong-Mah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fundamental competencies of preliminary teachers by shifting focus of micro-teaching programs from evaluation of teaching behaviors to reflective practice. To this end, this paper adopted a methodology of narrative study and used ricoeur's mimesis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review, Self-consultation of instruction was applied to a micro-teaching programs of a college of education. This research employed the model to examine teaching demonstrations of 15 aspiring teachers in a college of education in Chungcheongbuk-do. Five meaningful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First, the program provided the participants with the opportunities to enhance objective self-awareness. Second, the feedback from the peers rather than education experts was more acceptable to the subjects. Third, a multi-phase evaluation was more effective in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s. Fourth, This had reduced anxiety, and obtained the design for their class. Lastly, the participants said they realized that in addi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ir major, multidisciplinary knowledge was important to be a good teacher. These conclusions indicate that Self-consultation of instruction is necessary for both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And this study will be guidelines when you design the program for teachers, referencing participants's clear opinions.

Key words : Self-consultation of instruction, Reflective reflection, Micro-teaching, Action Research

† Correspondence : You Yeong-Mahn, Hanyang University, 010000@hanyang.ac.kr

www.kci.go.kr

Ⅰ. 문제 발견하기

마이크로티칭은 1960년대부터 예비교사의 수업경험을 향상시키고자 시작되었다(Koross, 2016).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실천할 수 없는 예비교사에게 마이크로티칭은 자신이 교수-학습지식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수업준비와 계획, 교수목표의 선택, 수업에 대한 태도, 대중 앞에서의 말하기와 질의응답, 수업시간계획세우기, 평가기술 등을 준비할 수 있다(Kiliç, 2010). 마이크로티칭은 본래 예비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영상을 분석하여 자기이해를 통해 성찰하며, 동료들과 토론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Benton-Kupper, 2001, Butler, 200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의 자기분석과 성찰 능력을 향상시켜 수업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서윤경, 2009; 조벽, 2012; Amobi & Irwin, 2009; Koross, 2016).

하지만 마이크로티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원양성교육은 교과지식과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소경희, 2004). 최근 교육부 주도의 사범대 평가로 사범대학의 존폐가 걸리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비교사를 위한 각종 연수, 수업연구대회, 연구수업, 수업시연 프로그램 등의 양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과교육학 및 교직과목들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다(김현진, 2010).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 대학은 양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개별 예비교사의 수업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강정찬, 2016). 특히 마이크로티칭 본래의 목적인 예비교사 스스로 성찰하고 동료들과 토론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방법과 시간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마이크로티칭의 주요방법은 교육학(교육공학)전문가의 강의 피드백이다. 강의 피드백 내용은 강의식 수업에 대한 컨설팅이 주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자의 교수실행, 강의 프레젠테이션 전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법, 수업단계별 진행방식, 효과적인 질의응답 방법 등이 있다(민혜리, 심미자, 윤희정, 2012; Kiliç, 2010). 이러한 현재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 운영은 실제 수업으로 전이되지 않고(서윤경, 2009), 개별적인 수업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소경희, 2004). 또한 실제 마이크로티칭을 경험한 예비교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하는지 알지 못한 채, 15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전문가 앞에서 수업시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비디오촬영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서윤경, 2009), 마이크로티칭 본래의 목적인 예비교사의 자기분석과 성찰이라는 개념을 프로그

www.kci.go.kr

램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티칭이 실제 수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수업시간을 15분 내외로 줄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교수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수업 시간에 할 일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강정찬, 2016; 서윤경, 2009).

교사는 자신의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매년 개성이 다른 학생들과 만나고, 매 수업시간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매 수업마다 전문가의 수업컨설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 성찰,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이상수 외, 2012). 그리고 교직생활 동안 동료교사와의 협업능력이 중요하며, 교과교육학 및 교육공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비교사 대상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은 본래의 목적인 자기분석과 성찰의 의미가 퇴색한 채 교수법 지식 습득을 위한 지시적인 피드백 중심의 일회적인 컨설팅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민혜리, 심미자, 윤희정, 2012; 소경희, 2004; 정석기, 조미희; 2015).

실제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말' 잘하는 교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인식과 더불어 실제적 기법이나 이론 중심에 초점이 있던 교사교육에서 '반성'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강정찬, 2016; 심현애, 김경연, 2012; 이상수, 2016; 조성민, 2009; Boody, 2008; Smith, 2011), 2017년 임용시험의 2차 평가부터 수업시연 평가에 그치던 것에서 수업시연 후 평가위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반성적 성찰'이 추가되었다(김현정, 2016). 반성적 성찰이란 결과에 대해 단순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도 대화를 통해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Dewey, 1991; Schon, 1983). 본 연구는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 반성적 성찰을 이끌기 위해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적용하였다. 자기수업컨설팅은 'zoom out(되돌아보기) — zoom in(들여다보기) — Action(새롭게 경험하기)'의 단계를 통해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수업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려다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반성적 성찰과정이다(이상수, 2016).

본 연구는 마이크로티칭의 본래의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도록 반성적 성찰을 이끄는 마이크로티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연구자가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2015년과 2016년에 운영한 마이크로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질적 연구 방법론 중 실행연구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였다. 수업에 대한 환경과 학습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교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수업을 수정, 개선해나가야 한다. 자기수업컨설팅은 교사 스스로 수업개선의 의지를

www.kci.go.kr

가지게 하며, 외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의 실천전략을 강조한다(이상수, 2016). 따라서 예비교사 단계에서 자기수업컨설팅 습득은 실제 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비교사 단계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실제 교사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수업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을 예비교사 단계에서 지원해야 한다. 반성적 성찰은 단순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 통합, 실천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한다(조성민, 2009). 예비교사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직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재구성, 통합, 실천의 계획을 세우게 할 것이며, 추후 현장에서 지속적인 수업개선 능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재 자기수업컨설팅이 현장교사나 교수들에게 적용, 운영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 단계에서의 적용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반성적 성찰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기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사례의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며,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 한계와 자기수업컨설팅

1. 예비교사 필요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1)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금까지 예비교사를 위한 교사양성 교육은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소경희, 2004). 이러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비판과 사범대학 평가 등을 이유로 사범대학에서 '수업행동분석실'을 설치하고, 수업시연 프로그램을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자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프로그램 대다수가 수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능력에 치우쳐있었음을 느꼈다. 실제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예비교사 수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업행동분석실을 통한 교육, 수업 경진대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김현진, 2010).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마이크로티칭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동료와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10분~15분 정도의 모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조

www.kci.go.kr

벽, 2012). 예비교사는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동료 학습자와 협력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수업전문성 요소에서 수업반성 및 전문성 발달 영역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서윤경, 2009).

현재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과지식과 교수법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고 지시적인 피드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소경희, 2004). 둘째, 교육학(교육공학) 전문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회성 컨설팅 방법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민혜리, 심미자, 윤희정, 2012; 정석기, 조미희; 2015). 이는 마이크로티칭 본래 개발 형태인 예비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영상을 분석하고 반성하며, 동료들과 토론하는 형태와 상이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목적인 자기분석과 성찰의 의미가 상실된 채 운영되고 있다. 교사생애주기 동안 교사는 매 수업마다 전문가의 수업컨설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 성찰,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이상수 외, 2012). 그리고 교직생활 동안 동료교사와의 협업능력이 중요하며, 교과교육학 및 교육공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현진(2010)은 예비교사 교육에 대해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 수업에 대한 종합적 이해 능력 향상, 교과내용의 핵심 지식 구조를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성찰의 기회 제공, 수업능력개발을 위한 공동체적 성장의 문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학습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성찰적 실천가'로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성적 성찰을 이끌기 위한 지원전략으로 프로그램 각 단계 마다 공동체적인 문화지원을 하였다.

2) 성찰적 실천가로서 예비교사와 반성적 성찰

예비교사의 역량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수업계획 및 준비, 실제 수업 실시, 학습평가, 생활지도 등이 있다(조대연, 2009).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교사역량과 유사하다(서윤경, 2009).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는 교실현장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교과교육학과 교수학습방법의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수업을 이루는 전체에서 일부만 선택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비교사가 배운 교과 및 교육학적 지식이 실제 현장에 진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발전되어야 한다. 때문에 수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수업구성 요소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과정과 그들이 수업효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을 부단히 재점검해보는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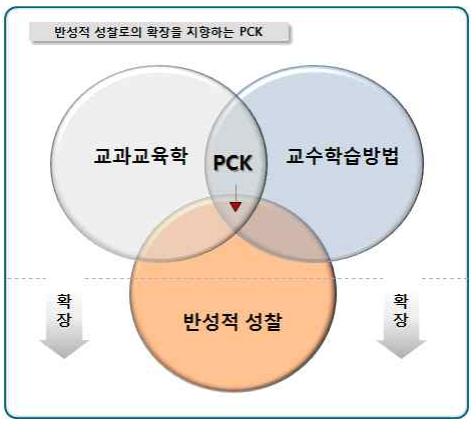
www.kci.go.kr

적 성찰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 탐색과 객관적인 처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마이크로티칭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학생들을 주도하는 예비교사의 생각과 행동이 수업과정과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어 가는지를 동료 예비교사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성찰적 실천가는 Schon(1983)이 전문가가 가져야할 역량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천과 성찰의 지속적 연계성을 통해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특히 실천 후 성찰(reflection-on-action)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문가는 실천 중에도 성찰(reflection-in-action)을 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전문성의 축적이 실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인 수업개선과 문제해결을 통한 전문성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성찰적 실천 역량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Borich, 2008; Pollard, 2002). 반성적 성찰은 성찰적 실천가로서 교사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태도'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기존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모형에서 반성적 성찰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 PCK는 내용교수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한 교과지식과 교수학습방법과의 결합이다. Shulman(1987)은 PCK의 구성요소로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 교수법,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학에 대한 지식, 학습자 이해 등을 말했다. PCK가 표면적으로는 교과교육학과 교수학습방법(교수법)을 통한 수업의 효과성 향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과의 내면화를 목적으로 한다(강현석, 서지민, 2009). 교과지식과 교수학습법이 결합하여 PCK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정' 즉 반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강현석, 2011). 반성적 성찰은 보조식[1]에 머물던 파편적인 교과 및 교육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실제 수업활동을 위해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초점식으로 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1) 이 문단에서 말하는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초점식, 보조식, 획득은 Polanyi(1966)의 개념으로 명제적 지식은 기호화 하여 형식화 할 수 있는 지식으로 교사교육에서는 '교수법'이 이에 해당된다, 방법적 지식은 기호로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행동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보조식과 초점식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앎은 인식해야 할 전체를 회득해야 하며, 초점식과 보조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초점식은 인식주체가 집중하는 대상이며,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수행과정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데 인지하지 않은 지식을 보조식이라고 한다.

www.kci.go.kr



〔그림 1〕 반성적 성찰이 포함된 PCK (이은택, 심규진, 유영만, 2016)

2. 자기 수업컨설팅과 반성적 성찰

1) 자기수업컨설팅의 개념

자기수업컨설팅이란 '나'와 '나의 수업'을 객관적인 눈으로 새롭게 드려다 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며, 일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 되돌아보기(Zoom out)—들여다보기(Zoom in)—새롭게 경험하기(Action)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이상수, 2016).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성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활동인 반면에 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Quinn, 199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수업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과수업의 교수자는 타 전공의 수업컨설팅 전문가의 평가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업(業)으로서의 '교사생애주기' 동안 매번 수업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적시 적소에 전문가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스스로 성찰적 실천가가 되어 스스로의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이상수, 2016).

Shulman(1987)에 의하면 교수자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과정을 이해-변환-수업-평가-반성-새로운 이해로 제시하였다. 이해부터 평가까지의 단계는 기존 교과지식 이해를 통해 수업 준비 및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이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성취수준 평가로 '가르치는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돌아보는 '반성'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새로운 이해'의 단계는 교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합

www.kci.go.kr

하는 단계이다(조성민, 2009). 즉,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까지 수업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반성적 성찰의 개념

인간은 모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의미를 창조하고 발견하여 재해석한다(강현석, 2011). 이러한 의미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얻는 경험을 조직하고 표현한 것이다. 2017년 교원임용고사부터 2차 시험의 수업시연에 '반성적 성찰면접'이 포함될 예정이며, 기존 수업시연에서 끝났던 평가가 자신의 수업을 평가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김현정, 2016). 교사는 '교사 생애주기'동안 자신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발전해나가야 하며, 동료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구성해나간다. 즉, 현재의 행동평가 및 일회성 수업컨설팅만으로는 예비교사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임용고시 준비뿐만 아니라 교사의 업(業)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성찰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수업현장에서의 교사의 수업 수행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동시에 수업상황에서 발현된다. 이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초점식(focal awareness) 지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초점식 지식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보조식(subsidiary awareness) 지식의 체득이 필요하다(Polanyi, 1966). 교사의 수업행위를 초점식이라고 하면, 수업행동에 필요한 교수법, 교육심리 등의 지식이 보조식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가 축적한 보조식은 수업상황에서 초점식으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업상황 관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비교사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현할 수업상황이 없기 때문에 학습한 지식을 체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런 이유로 초점식으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때문에 수업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반성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은 영어로 'reflect'이다. 이는 '다시'라는 're'와 '구부리다'는 'flectere'의 결합어로 구부려서 '다시 돌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Bengtsson, 1995). Dewey(1991)에 의하면 반성적 성찰(반성적 사고)이란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숙고하는 과정이다.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반성적 사고만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론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Dewey, 1991). 또한 Schon(1983)은 반성적 성찰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나' 또는 '타인'과의 성찰적 대화(reflection conversation with situation)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나가는 것이라고

www.kci.go.kr

말했다. 따라서 반성적 성찰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결과와 과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대화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3. 반성적 성찰의 실천: 리쾨르의 미메시스 적용

미메시스(Mimesis)란 '마치~처럼'으로 주어진 무언가를 모방하는 것이다(Gunter, Christoph, 1995). 예비교사 교육이 실제 현장이 아닌 '수업시연'이라는 수업을 모방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티칭은 미메시스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메시스 과정을 촉진하는 것은 초보자교육에서 좋은 교육방법이다(이병준, 이유리, 2013).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수업기술과 수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철학, 수업스타일, 좋은 수업에 대한 관념 등이 모방을 통한 미메시스적 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미메시스는 행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함양하는데 역할을 한다(Gunter & Christoph, 1995).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마이크로티칭의 최종목표는 '자기이해'이다. Ricoeur의 미메시스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변증법적 대화과정으로 자아형성의 문제를 다루는데(이재호, 2008), 예비교사는 미메시스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이해'를 향해 나아간다. <표 1>은 Ricoeur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이다.

예비교사역량 발달단계를 Ricoeur(1983)의 삼중 미메미스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Mimesis Ⅰ는 개념화 단계로 표상적인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실제 좋은 수업의 관찰을 통한 경험, 자신의 수업철학을 탐색할 수 있다. MimesisⅡ는 Mimesis Ⅰ에서 습득한 지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전(前) 단계의 이야기재료들을 이야기를 통해 재해석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때 반성적 성찰

〈표 1〉 삼중 미메시스의 예비교사 프로그램 적용 (이은택, 심규진, 유영만, 2016)

단계	Mimesis Ⅰ	MimesisⅡ	MimesisⅢ
	전형상화 (개념화 단계)	형상화 (이야기 만들기 단계)	재형상화 (자아형성 단계)
앎의 단계	표상적 지식의 습득, 표면적 의미의 이해	심층적 의미의 이해, 해석, 반성적 성찰	자기이해, 현상을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본 연구의 적용	• 필요역량 지식습득 • 좋은 수업 관찰 • 수업철학 탐색	• 수업설계하기 • 수업설계안 모방/수업 • 모방된 수업 공유	• 수업시연 • 자기성찰(자기수업컨설팅) • 수업평가(동료평가)

www.kci.go.kr

도 함께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전 단계의 지식을 모방하는 단계로 머물기 때문에 수업설계안을 모방하여 수업하는데 그치며, 모방된 수업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을 공유한다. MimesisⅢ은 현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는 단계로 자신의 수업을 '나'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업시연의 내용을 자기수업컨설팅과 동료평가를 동시에 함으로서 자기이해 단계에 이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실행연구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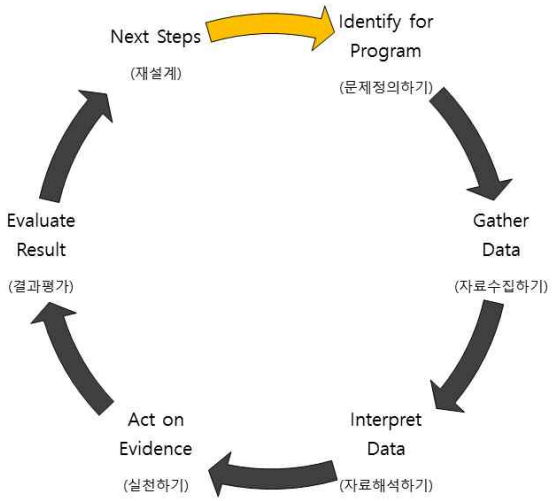
1. 실행연구의 의미와 단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 실행연구를 적용하였다. 수업 현장의 맥락과 관계를 이해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주 개념인 '반성적 성찰'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통계자료로 검증하는 양적연구 보다 현장의 의미발생과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질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행연구(Action Science)는 Levin(1946)이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을 통해 최초로 사용하였다. 실행연구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인 사람이 본인의 실천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더 나은 실천을 도모하게 한다(박창민, 조재성, 2016). 그래서 실행연구를 '현장개선연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의 실행연구 관련 연구는 주로 교사의 전문성,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탐색하는 것으로 실행연구는 현장에 있는 실천가의 연구로 연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나선형적 순환구조를 보인다(강지연, 소경의, 2011). 본 연구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설계자인 동시에 운영자(강사)인 저자가 2015년 '마이크로티칭과정'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문제 상황과 국내의 예비교사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이다. [그림 2]는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의 실행연구 단계이다(Ferrance, 2000).

첫 번째 단계인 문제정의하기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하였던 연구와 현장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문제를 정의한다.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수집단계에서는 인터뷰, 포트폴리오, 사진, 설문지, 자기평가지 등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Ferrance, 2000). 자료해석하기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자료를 통합한다. 수집된 자료를 통합한 실천계획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하나의 변수만 결과를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한 결과를

www.kci.go.kr



〔그림 2〕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의 실행연구 모형 (Ferrance, 2000)

〈표 2〉 본 연구의 실행연구 적용과 단계

실행연구 단계	본 연구의 적용과 단계
문제정의	- 문제영역의 구체화: 질문하기
자료 수집과 조직화	- 마이크로티칭 선행연구 수집 - 수집한 현장 데이터 : 연구자의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사진, 영상, 참여 학생의 교수학습계획서, 동료평가지, 자기평가지, 만족도 설문지 등
자료 해석	- 선행연구 및 연구자 경험 분석 - 이론탐색(자기수업컨설팅, 반성적 성찰, 리쾨르의 미메시스)
데이터 기반 실천	- 통합된 이론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 재설계	- 생태학적 평가방법 제안

성찰하고 평가하며, 다음 실행계획을 세운다. <표 2>는 실행연구단계와 본 연구의 실행연구 적용과 단계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단계인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Strauss, Corbin, 2001). 그리고 선택코딩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는 본 논문에 실제 현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를 직접 인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이용한다(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삼각측청법 중에서 영상, 설문지, 프로그램

www.kci.go.kr

평가지, 연구참여자를 위한 교육자료, 연구자의 성찰일지,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자료의 통합과, 복수의 연구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구자의 통합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는 김영천(2012)에 따라 <표 3>과 같이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표 3〉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안과 적용

	김영천(2012)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 적용
1	충분한 시간 자료수집과 연구: 교육학의 경우 3개월 이상 권장	자료수집기간: 2015년 5월~2016년 8월
2	심층적 기술 및 참조자료 사용	현장의 언어를 연구에 그대로 기술하여 현장성을 확보 연구에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을 활용
3	연구참여자의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평가를 연구에 반영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C대학 사범대 학생들의 평가를 확보
4	동료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반영	2016년 한국교육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 심사자, 동료연구자의 피드백 반영
5	자기반성	본 연구의 Ⅴ. 연구자의 반성과 계획의 수정에서 1. 연구자의 반성: '수업시연자'와 '수업컨설턴트'의 사이를 통해 자기반성의 내용을 기술

2. 이론의 통합과 실행계획

본 연구는 보조식에 그쳐있던 수업행동평가 중심의 예비교사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서 자기수업컨설팅 기반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수업컨설팅에서 중요한 개념인 반성적 성찰 역량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탐색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실행하기 위해 이론을 통합하여 <표 4>와 같이 계획을 세웠다.

각 프로그램의 단계는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적용하여 앎의 단계인 개념화단계-이야기 만들기 단계- 자아형성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는 이상수(2016)의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적용하였다. 개념화 단계에서는 수업을 하기 위한 재료를 구성하기 위해 예비교사로서의 수업과 학생으로서의 수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공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과에 적용해보고, 서로 피드백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수업목표에 따른 '교과의 지식전달'에 중점을 두던 수업설계에서 자신의 수

www.kci.go.kr

〈표 4〉 Mimesis와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 과정

앎의 단계	Mimesis Ⅰ	Mimesis Ⅱ	Mimesis Ⅲ
	전형상화 (개념화 단계)	형상화 (이야기 만들기 단계)	재형상화 (자아형성 단계)
프로그램 주제	'수업하기'와 '이야기'를 위한 재료 준비	모방하여 수업하기, 반성적 성찰하기	수업시연과 자기평가
되돌아 보기 zoom out	1) 교사로서 수업하기와 학생으로서 수업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1) 수업준비과정과 수업시연 경험 이야기하기	1) 전(前)단계와 비교하여 이야기하기, 나의 교육철학과 성향에 맞는 교수법 이야기하기
들여다 보기 zoom in	2) 공유된 경험 서로 이야기하기(피드백하기)	2) 수업설계와 관찰된 행동 이야기하기, 아이디어 공유하기	2) 전 과정에 대한 변화 이야기하기
새롭게 경험하기 action	3) 수업경험, 교육철학, 교육목표를 연결하여 수업 계획하기	3) 공유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수업 준비하기	3) 교사로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계획하기

업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생각해보고 이를 수업에 연결해 보았다. 이야기 만들기 단계에서는 수업시연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준비과정에서의 고충과 실제 수업시연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수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공유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같은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형성단계에서는 실제수업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동료학습자와 수업컨설턴트(프로그램운영자)가 실제 학생 역할을 하였다. 짜인 각본이 아닌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였다. 과정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은 3단계 동안 일어난 자신의 변화과정을 이야기 하고,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는 교수법을 찾아보았다. 또한 교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

Ⅳ. 연구결과: 실행연구 과정과 결과

1. 프로그램의 절차와 방법

마이크로티칭의 기본절차는 계획-실행-평가재계획-재실행-재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

www.kci.go.kr

다(Saban & Çoklar, 2013).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마이크로티칭 단계를 예비교사에 맞춘 연구인 정석기, 조미희(2015)의 예비교사 수업컨설팅 절차인 PDDRE의 모형(계획-자료수집-진단-반성적 실행-평가)를 적용하였다. PDDRE 모형에 수업시연의 어려움을 반영한 요구분석과 자기수업컨설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단계는 기존에 전문가 컨설팅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협력적 관계와 반성적 성찰을 함양하기 위해 리쾨르의 미메시스의 단계에 근거하여 동료컨설팅, 자기수업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프로그램 참가자

〈표 5〉 참가자의 기본 인적사항

학과	참가자(명)	합계(명)	수업시연경험	참가자(명)	합계(명)
국어교육과	7	15	Y	6	15
산업디자인학과	1		N	9	
수학교육과	2		학년	참가자(명)	합계(명)
역사문화학과	1		2	7	
한문교육과	4		3	2	15
			4	6	

2)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의 도입

본 연구는 기존의 전문가에 의한 행동평가 위주로 운영되었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한 사례연구이다. 기존 프로그램은 사전교육 없이 15분~20분의 수업시연 이후 전문가의 현장피드백, 서면 피드백, 수업시연 영상 제공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현장피드백에서 수업시연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한 채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면서 수업행동만 평가하게 되고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일회적인 피드백으로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자기수업컨설팅 개념뿐만 아니라 동료컨설팅, 수업설계교육, 유사계열의 조 편성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표 6>는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도입한 프로그램 운영내용이다. 본 과정이 운영되기 전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수업시연을 위한 수업설계방법, 자기수업컨설팅과 동료컨설팅을 위한 수업컨설팅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

www.kci.go.kr

〈표 6〉 삼중의 미메시스를 적용한 프로그램 운영 내용

no	PDDRE	본 연구 단계		세부내용		기간
1		사범대학 대상 사전 요구분석(51명)		- 수업시연 문제 요소 파악 - 수업설계 역량 파악		2016년 3월~5월
2	계획	프로그램 신청 및 요구사항 작성		-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사항 및 개선하고 싶은 사항		2016년 5월~6월
3		수업컨설팅 교육		자기수업컨설팅, 수업설계 동료평가 실습하기	2H	6월 20일(월) 2시~4시
4	자료 수집	< Mimesis I > 수업설계하기: '수업하기'와 '이야기'를 위한 재료 준비		수업지도안 만들기 수업일관성, 수업단계별 구성 피드백	3인~4인 1팀(5팀) 각 2.5H	6월20일 ~7월7일
5	진단, 반성적 실행, 평가 통합 운영	Mimesis II 1차 수업시연과 활동: 모방하여 수업하기, 반성적 성찰하기	진단단계	1차 수업 시연 촬영	3인~4인 1팀(5팀) 각 2.5H	7월11일 ~7월14일
			중간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전문가 평가		
6		Mimesis III 2차 수업시연과 활동: 수업시연, 자기평가	반성적 실행 단계	2차 수업 시연 촬영	3인~4인 1팀(5팀) 각 2.5H	7월18일 ~7월21일
			평가단계	자기평가, 동료평가, 전문가 평가		

니라 컨설턴트로서의 태도를 교육하였다. 아울러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 Ricoeur(1983)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3) 문화적 공유를 위한 조 구성

동료교사(동료학습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보고, 타인의 수업을 평가하며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조를 편성하였다. 동일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계열 학과와 같이 조 편성을 하였다(A조). 하지만 D조의 산업디자인학과 학생은 프로그램 초반에 음악교육과 학생들과 조를 편성하였지만,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여 D조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D조는 프로그램 초기에 상대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에 집중하였다.

www.kci.go.kr

〈표 7〉 참가자의 조 편성

조	학과구성				합계 (명)	수업시연 경험 (명)
A	역사문화학과	한문교육과	한문교육과		3	3
B	한문교육과	한문교육과			2	2
C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4	0
D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산업디자인학과		3	1
E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3	0
총(명)					15	6

4) 사전 요구분석

요구분석은 본 프로그램 참여자 이외에도 C대학에 재학 중인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요구분석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된 내용은 '수업 컨설팅 교육' 단계에서 활용하였으며, 연구자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였다. 질문1)은 교육내용의 보충·심화자료로 참고하였으며, 질문2)는 교육철학과 교육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활용하였다.

질문1) 수업시연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응답1) "수업시연을 준비할 때 지도안을 짜는데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긴장이 너무 돼서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국어교육과 C학생

응답2) "수업의 흐름구성과 제한된 시간의 수업시연 시간관리, 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A학생

응답3) "수업시연 할 때 50분 수업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학생들의 반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수학교육과 A학생

수업시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는 지도안작성, 제한된 시간이 있는 수업시연에서의 시간 재구성, 실제학생이 없는 환경에서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표현하기, 발화법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교육시간에 학생들의 고민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수업방법은 수업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이상수 외, 2012), 교수자의 교육철학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철학을 쉬

www.kci.go.kr

운 용어로 접근하기 위해서 '좋은 수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예비교사들의 답변에서는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답변이었지만, 처음 작성해온 '교수학습 과정안'에서는 '상호작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과 연결하여 교수법 선택, 평가방법 등 수업일관성 교육을 실시하고 '교수학습 과정안' 수정을 유도하였다.

질문2) '좋은 수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응답1) "학생과 교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입니다." - 한문교육과 A학생

응답2)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억하게 만드는 수업입니다." -수학교육과B학생

응답3)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부담되지 않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언어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업을 통해 교사가 제시한 학습목표에 도달하여 학습의 만족감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역사문화학과 A학생

2.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본 프로그램은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피드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컨설팅'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수업설계 방법과 지도안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고, 기존에 작성하였던 지도안의 강점과 개선점을 찾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료컨설팅과 자기수업컨설팅을 위하여 '컨설턴트'로서 가져야할 태도를 전달하였고, 실제 수업영상을 보고 실습을 하였다. 실제 수업영상은 초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본 연구자가 수업하는 영상을 활용하였다. 교육 이후에는 5개의 조로 구성하여 수업설계하기-1차 수업시연과 활동- 2차 수업시연과 활동으로 1주일에 1번 3시간씩 모임을 가졌고, 총 3주간 진행하였다.

1) 수업설계하기: '수업하기'와 '이야기'를 위한 재료 준비

'수업설계하기'에서는 수업컨설팅 교육 후 2주간의 시간을 주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안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학생은 지도안 형식에 맞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도안을 써본 학생은 기존에 작성했던 지도안에서 수정·보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도안을 써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에 불편함을 가지기도 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지도안은 50분 수업 기준의 '세안'이다. '세안'으로 작성한 이유는 수업운영을 위한 수업시연이 되지 않도록 학습자분석, 교

www.kci.go.kr

수철학 등을 연결하기 위함이었다. 작성해온 지도안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을 소개하고 수업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특히 유사계열의 학생사이에서는 교과 학습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많이 공유하였다. 그리고 50분의 수업 내용을 어떻게 15분~20분으로 재구성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2) 1차 수업시연과 활동: 모방하여 수업하기, 반성적 성찰하기

1차 수업시연과 활동에서는 '수업설계'단계에서 준비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수업시연을 하였다. 1차 수업시연에서는 시간제한을 주기 않고, 자유롭게 수업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자 돌아가면서 수업시연을 한 뒤 서로의 '강점'과 '개선점'을 작성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점과 개선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강의촬영 분석지를 제공하였다. 이 분석지는 평가의 요소로 쓰지 않고, '이야기재료'인 가이드로만 사용하였다. 이야기를 나눌 때는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순서가 중요하였다. 전문가가 먼저 피드백을 주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수용하는 수동적인 답변에 그쳤으며, 동료학습자가 답변을 먼저 주면 수업시연자는 그 말에 동의하는 답변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가장 먼저 수업시연자가 자신의 수업시연 소감과 아쉬운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동료학습자들이 아쉬운 점에 대한 개선점을 강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답변을 주도록 하였다.

<강의 비디오 촬영 후 강의진단 및 강의 분석>

평가자:

수업시연자:

구분		교수행동 유형	진단 및 분석				
도입부		전시 수업내용에 대해서 정리(질문, 발표, 요약,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 목표와 개요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개	질문	학습자의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시 직접적이고 명료한 용어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을 한 다음 학습자들에게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개별 학습	학습자들에게 자율적 학습 기회(문제풀이, 생각 및 내용 정리)시간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발표나 토론 등 학습자들에게 수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 동기 유발	흥미로운 소재 등을 통하여 수업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할 만한) 내용을 강의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간단한 유머나 시사적 내용 소개 등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한다.)	①	②	③	④	⑤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제시 및 전달 방식	중요한 내용은 중간 중간에 반복하거나 요점을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내용과 관련한 적절한 예시, 배경지식 및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공과 관련하여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나 태도 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상호 작용	언어적, 비언어적 피드백 등을 통해 충분한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자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마무리		수업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 종결 시 적절한 과제 제시 또는 다음 학습 내용 및 자료를 소개하고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 초반에 제시했던 수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개인적 특성		강의실 전체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강의를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시선 처리, 몸짓 등이 다양하며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어조의 변화 정도, 크기, 속도 등이 전체적으로 매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강의실 공간(이동 동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시선 처리, 몸짓, 목소리 등을 통해 학습자와의 교감을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총평							

동료컨설팅 및 자기수업컨설팅 정리

작성자: 이수지

	수업시연자	강점	개선점
1	최형권	수업 시작전에 동영상자료를 제시하여 흥미유발함, 교사와 학생이 [illegible] PPT에 활동을 주어줌	말을 늘이는 경향이 있다. ('로....', '그리고....' 등)
2	조인형	판서를 적절히 활용했음. 수업중간에 영상을 보여주어 흥미유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유발 [illegible]	말이 조금 빠르다. 장점이자 개선점인듯
3	송지여	그림자료를 제시해줌 PPT에 [illegible] 판서활용 [illegible]	같은 말 반복 PPT [illegible] - 가독성
4			

자기수업에 대한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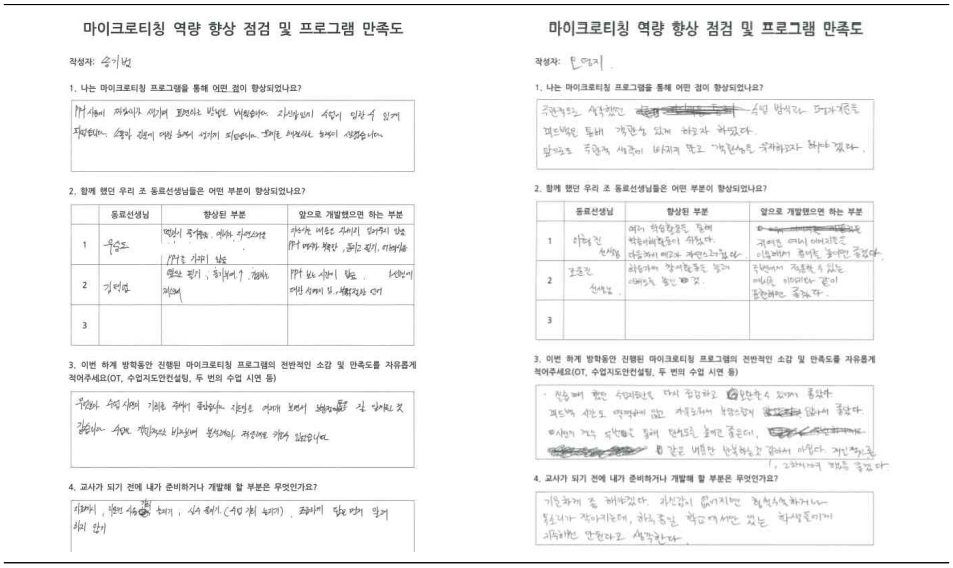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목소리 톤이 일정해서 수업이 '지루하다'. 학생들이 중요하게 볼 부분은 판서를 통해 제시하여 계속 보고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톤을 더욱 변화되도록 해야겠다.

〔그림 3〕 1차 수업활동지

www.kci.go.kr

3) 2차 수업시연과 활동: 수업시연과 자기평가

2차 수업시연과 활동에서는 1차 활동에서 이야기 나눈 이야기를 반영하였고, 실제 수업시연 평가처럼 시간제한을 두었다. 2차 활동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점과 강점을 중심으로 성찰하였으며, 자기이해를 위하여 미래의 업(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았다. [그림 4]는 2차 수업활동 결과물이다.


마이크로티칭 역량 향상 점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작성자: 송이빈

1. 나는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점이 향상되었나요?

2. 함께 했던 우리 조 동료선생님들은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나요?

	동료선생님	향상된 부분	앞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부분
1	유승도	떨리지 않게됨. 여유. 자연스러운 PPT로 지루 X	PPT 없이 X
2	김태훈	목소리 ; 톤높이? 강약 리액션	PPT 없이 X 너무 어린 시절의 X 사례지양 ㅎㅎ
3			

3. 이번 하계 방학동안 진행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감 및 만족도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OT, 수업지도안컨설팅, 두 번의 수업 시연 등)

4. 교사가 되기 전에 내가 준비하거나 개발해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이크로티칭 역량 향상 점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작성자: [redacted]

1. 나는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점이 향상되었나요?

2. 함께 했던 우리 조 동료선생님들은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나요?

	동료선생님	향상된 부분	앞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부분
1	이혜진 선생님	여러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중심수업이 이뤄졌다. 다양한 수업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redacted] 그러면 어떤 어려움은 이겨내야 좋을지 알려주면 좋겠다.
2	조은진 선생님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같이 고민해주는 좋은 동료선생님 좋은 동료가
3			

3. 이번 하계 방학동안 진행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감 및 만족도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OT, 수업지도안컨설팅, 두 번의 수업 시연 등)

4. 교사가 되기 전에 내가 준비하거나 개발해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림 4〕 2차 수업활동 결과물

3. 참여자 결과 평가하기

실행연구에서 결과 평가는 다음 실행을 계획하기 전의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업활동결과물과 만족도평가를 통해 결과평가를 도출하였다. 이 밖에 연구자의 결과평가는 Ⅳ. 연구자의 반성과 계획의 수정: 실행연구의 반성과 수정에서 기술하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를 알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5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5가지 주제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 '동료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심리적 만족', '비교를 통한 개선점 찾기', '수업을 위한 역량향상', '배움의 필요성'이다.

www.kci.go.kr

●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

"다른 학생들의 지도안을 함께 보면서 보완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수업분석과 수업환경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문교육과 B학생-

"직접 수업을 시연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 나의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동시에 나의 강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야하는구나'도 깨달았습니다." -수학교육과 A학생-

마이크로티칭의 목적은 '자기이해'이다. 본 프로그램은 예비교사가 '자기이해'를 통해 수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수업컨설팅을 도입했다. 특히 반성적 성찰을 함양하기 위해 본 과정을 운영했다. 위의 의견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다른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일방적인 전문가의 피드백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다고 했다.

● **동료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심리적 만족**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 특히 동료 간 피드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어교육과 C학생-

"서로 피드백을 하니 무엇이 좋은 수업인지 알게 되었고, 강점과 개선점을 알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국어교육과 A학생-

"다른 친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니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교육과 A학생-

"학생들끼리 소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같이 한 선생님도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주어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국어교육과 B학생-

교사는 교사의 생애주기 동안 수많은 교사들과 협업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원활한 동료피드백을 위해 수업컨설팅 교육 단계에서부터 동료학습자와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수업컨설팅교육에서는 수업컨설턴트로서의 태도를 배우고, 프로그램 운영자(본 연구자)의 수업영상을 보고 실습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의 '교과'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기를 원했으며, 현장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특정 교과가 가지는 고민을 서로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www.kci.go.kr

● **비교를 통한 개선점 찾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연을 비교하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문교육과 A학생-

"실습 때 했던 수업지도안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었고, 단계가 진행 될수록 전에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문교육과 C학생-

"두 번의 시연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기는 했는데, 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A학생-

일회적으로 수업시연이 끝나면 수업역량 향상 정도를 스스로 체감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업시연 전(前)단계에 어떠한 교류 없이 수업시연을 하게 되면, 학생의 교과적 배경, 수업지식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특성에 맞는 피드백을 할 수 없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경험과 수업시연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참여자들의 수준이 상이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경험이 없는 학생은 수업설계 단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었으며, 산업디자인학과 A학생처럼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학생은 반복적인 수업시연에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설계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 **수업을 위한 역량향상**

"수업설계와 파워포인트 설계법 등 다양한 기술을 배웠고, 수업시연 환경이 실제 수업과는 달라 걱정이 많았는데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국어교육과 B학생-

"수업 중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과 질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학교육과 B학생-

"나의 과목과 학습목표에 맞는 수업방법과 평가기준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교육과 E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시연을 위해 수업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에 만족감을 느꼈으며, 수업설계와 수업시연을 직접 해 봄으로써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했다. 또한 수업매체제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줄었다고 하였다.

● **배움의 필요성**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과지식 외에도 수업방법과 매체설계법 등 다양한 지식을 알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국어교육과 F학생-

"수업지도안 작성의 중요성을 알았고, 앞으로 수업지도안 작성에 대해 더 공부해

www.kci.go.kr

야겠다.” -수학교육과 A학생-

“앞으로 많은 수업시연 경험을 갖고 싶고, 이를 통해 불안감 해소와 자신감을 얻고 싶다.” -한문교육과 C학생-

“수업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말하기나,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수업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단계도 단순히 동기유발 전략과 내용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업철학, 수업목표 등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 국어교육과 A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즉 수업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복잡하고, 단순히 교과지식을 잘 아는 것과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따라서 교과학습 외에도 ‘좋은 수업’을 위해 여러 분야를 학습해야겠다고 했으며, 더 많은 수업시연 경험을 갖고 싶어 했다.

Ⅴ. 연구자의 반성과 계획의 수정: 실행연구의 반성과 수정

1. 연구자의 반성: ‘수업시연자’와 ‘수업컨설턴트’의 사이

본 연구자는 교직이수를 통해 ‘수업행동분석실’에서 시행한 ‘수업시연’을 몇 차례 경험하였다. 수업시연을 하기 전에는 ‘수업’이라는 생각보다 ‘발표’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했었다. 교수학습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시연 준비를 하였지만, 수업시연의 상황적 특성 때문에 교수학습지도안 그대로 시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어려웠던 두 가지는 ‘제한된 시간’과 ‘실제학생’의 부재였다. 또한 과목의 특성과는 관련 없는 피드백은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교직전공이었던 ‘상업정보’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동료학습자에게도 낯선 과목이었다. 학부생이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부족했던 연구자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수업시연이었지만 교직과정으로 통해 수업설계와 수업매체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수업시연자’에서 지금은 ‘수업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에 마이크로티칭을 운영할 때 연구자는 초보자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때문에 수업시연에 대해 통합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강의촬영컨설팅 평가지에 의존하여 컨설턴트와 참여자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대면피드백과 서면피드백을 하였다. 이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해당 학생의 교과에 대해서 지식이 낮기 때문에 수업행동 중심으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 입장에

www.kci.go.kr

서는 수직적인 관계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드백에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초창기 컨설팅은 연구자가 '수업시연자'였을 때 느꼈던 점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한국교육공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컨설턴트 자격과정을 이수 하면서 '자기수업컨설팅'개념을 알게 되었고, 반성적 성찰을 구체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학부생에게도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이 적절할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본 프로그램 참여자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예비교사들과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습자 분석에 의해 더욱 세부적으로 과정 운영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교육 단계에서 자기수업컨설팅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2. 프로그램 평가의 새로운 고찰

본 연구를 양적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로 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authentic) 평가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실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기존 평가 방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과정의 본연의 활동은 학습자의 어떠한 변화를 위해 특정 시간 내에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변화 모습을 기대하는 것(정창규, 강대일, 2016)이라고 할 때, 새로운 개념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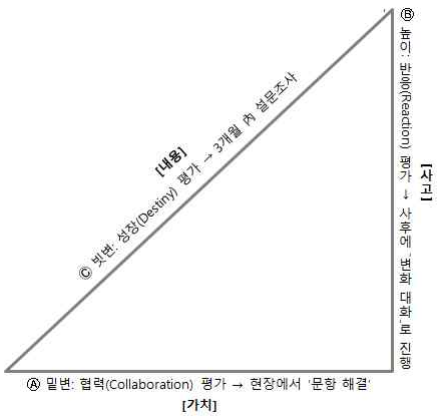
궁극적으로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여러 차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그 개별적인 가치를 다원적으로 공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백순근, 2000). 이를 위해서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종합적이며, 협력적으로 참여자를 평가할 수 있는 '생태학적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과정을 중시하는 Capra(2010)의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의 특징을 반영한 평가방법으로서 '생태학적 접근'의 개념은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백순근, 2002).

〈표 8〉 과학적 접근과 생태학적 접근의 비교 (백순근, 2002)

	과학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사고	합리적, 분석적, 선형적	직관적, 종합적, 비선형적
가치	경쟁적, 양적, 지배적	협동적, 질적, 협력적
내용	부분, 구조, 객관적 과학, 진리	전체, 과정, 인식적 과학, 근사적 진술

www.kci.go.kr

이러한 사고, 가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생태학적 접근은 학습자원을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유영만, 2002). 또한 현상학적 · 해석학적 ISD(Instructional Systems Design) 모델링에 비추어 볼 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도에 따라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문제해결 정도에 대한 합의창출 여부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유영만, 2008).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Kirkpatrick(1998) 1단계 반응(reaction), 2단계 학습(learning), 3단계 활용(behavior), 4단계 결과(results) 등 단계적 개념에서의 '측정(mesurement)' 없이 개인의 만족감 확인, 집단의 가치판단 합의 절차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apra(2010)의 생태학적 접근의 3가지 구분에 따라 생태학적 평가 요소를 [그림 5]와 같이 구성해보았다.



〔그림 5〕 생태학적 평가의 3가지 구성요소

Ⓐ는 삼각형의 밑변으로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영역이다. 본 평가를 통해 학습 내용의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그룹별로 '협력적 문항'을 통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진리(眞理)가 아닌 일리(一理)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는 삼각형의 높이로서 William, Stephen (2012)의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의 OARS기법[2]을 통해 변화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평가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치의 상승과 하락을 해석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2) Open question, Affirming, Reflection, Summarizing

www.kci.go.kr

정도를 이해했다면, 본 평가에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심층 대화'를 통해 학습 이후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으로서 참여자 개인이 속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평가이다. 모든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의 나'로 살아가기에 학습 이후 참여자가 속한 환경에서 2~3개월간의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을 평가해봄으로서 학습 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평가이다. 본 평가는 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속한 공동체 일원들의 평가까지 병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삼각형의 밑변, 높이, 빗변이 정확하게 제 위치에서 구실을 해야 직각 삼각형이 완성되듯이 생태학적 평가 개념으로 제안한 협력(collaboration) 평가, 반응(reaction) 평가, 성장(destiny) 평가 등 세 가지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존 마이크로티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구조사 단계부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환경적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 심층 면담 및 사후평가에 대한 동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자 및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평가가 가능한 협력적 문항을 개발하여 시범적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Kirkpatrick(1998)의 활용 평가를 참고하여 개발된 국내의 현업적용도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예비교사를 위한 성장 평가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교사의 반성적 성찰이 교사교육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업컨설팅 영역에서는 수업설계를 위한 '기술', 수업시연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장의 교사는 실제로 자신의 초점식 지식을 발현할 수 있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비교사의 경우 자신의 초점식 지식을 총체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은 습득한 지식을 발현할 수 있는 장(場)의 기회마련과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반성적 성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기수업컨설팅에서 중요한 개념인 '반성적 성찰'을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도출된 프로그램 모형을 C대학의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

www.kci.go.kr

였고, 기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기수업컨설팅에 기초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고, 파편적으로 습득한 보조직의 지식을 통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수업행동'중심으로 평가했을 경우 '프레젠테이션'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강의식 수업의 발화에 평가비중이 높았다. 이로 인해 교과의 특성과 관계없이 강의식 수업을 평가하게 되고, 예비교사의 수업철학과 무관한 수업시연을 하여 자신감을 낮게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설계를 시도하였다. 또한 '프레젠테이션'능력이 낮더라도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던 마이크로티칭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반성적 성찰을 이끄는 자기수업컨설팅 모형 기반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현장에 적용해 본 결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 '동료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심리적 만족', '비교를 통한 개선점 찾기', '수업을 위한 역량향상', '배움의 필요성'의 5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는 자기수업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함양할 수 있었다. 둘째 '동료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심리적 만족'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감' 뿐만 아니라 교직생활 동안 필요한 동료교사와의 협업능력과 서로 다른 전공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미리 실천 해보는 '수업경험'과 수평적인 구조 아래 동료학습자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성찰적 경험'이었다. 셋째, '비교를 통한 개선점 찾기'는 수업설계, 1차 수업시연과 활동(모방하여 수업하기, 반성적 성찰하기), 2차 수업시연과 활동(수업시연과 자기평가)의 '단계적 비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이 가졌던 한계인 소위 교육학(교육공학) 전문가들의 교수법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고 일회적인 지시적 피드백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 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일회적으로 그치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서 예비교사 스스로 지속적으로 수업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태도'와 '방법'을 함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넷째, '수업을 위한 역량향상'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위한 설계, 매체제작 등 부가적인 '성과물'을 창출했고,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필요성'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교과목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

www.kci.go.kr

해 넓게 아는 것 또한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수업컨설팅이 현직교사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영역에서도 시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 단계'에서의 자기수업컨설팅은 다음 다섯 가지의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의 수동적으로 교과지식과 교수법을 수용하는 예비교사에게 스스로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배움의 의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삶과 교육을 되돌아보면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육철학을 고민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수업행동평가 중심인 보조식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수업행동평가 중심에서 반성적 성찰을 통한 실천을 강조하게 된다. 넷째, 예비교사가 실제 현업에 진출하여 교사 생애주기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수업개선비용 절감과 내부 자생적인 학교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수업컨설팅의 가장 큰 목적인 수업개선을 통한 학습개선을 만들 수 있다(이상수, 2016). 현재 예비교사 교육은 교사의 지식, 행동, 태도 함양에 집중되어 왔었지만,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의 배움에 있다. 자기수업컨설팅은 예비교사 자신의 수업행동에 국한된 시야에서 나의 수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배움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수업컨설팅의 개념은 향후 사범대 및 교직과정의 교과목의 구성, 내용, 방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교사 선발과정과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의 활용과 향후 후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의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론과 개념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부족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본래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론과 운영의 합의점 창출을 위한 성찰적 탐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은 충북지역에 소재한 대학생 15명을 전국적인 연구결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봄으로써 자기수업컨설팅의 확장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2017학년도 교사임용시험의 수업시연평가에서 '반성적 성찰 면접' 시행 이후 면접 사례를 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기수업컨설팅 개념과 반성적 성찰 면접의 접목점을 실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참여자 개인의 환경적 맥락 고려, 반성적 실천 단계의 확인여부 등을 위해 '생태학적 평가' 개념이 필요하다. 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중심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벗어나 현장, 개인, 사후 등 다면적 평가를 통해 과정중심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정찬 (2016). 반성적 성찰기법 활용을 통한 예비교사의 수업설계 능력 향상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231-261.

(Translated in English) Kang, J. C. (2016).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Instructional design competencies of Pre-teacher through using Self-reflexive reflection techniqu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 231-261.

강지연, 소경의 (2011). 국내 교육관련 실행연구 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197-224.

(Translated in English)Kang, J. Y., So, K. E. (2011). Educational Action Research in Korea. *Asian journal of education, 12*(3), 197-224.

강현석 (2011). 현대 교육과정 탐구.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Kang, H. S. (2011). *Explore contemporary curriculum*. Seoul: Hagjisa.

강현석, 서지민 (2009).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과교육학적 지식(PCK)개발의 예비적 탐색. 초등교육연구, 22(3), 217-243.

(Translated in English) Kang, H. S., Seo, J. M. (2009). Preliminary Study of Developing a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hrough Teacher`s Narrativ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3), 217-243.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 Ⅰ. Bricoleur.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Translated in English) Kim, Y. C.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Ⅰ. Bricoleur*: Seoul: Academypress.

김현진 (2010). 예비교사 수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ranslated in English) Kim, H. J. (2010). *A Study on Educational Plan for Pre-service Teacher Skill*. Seoul: Development.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김현정 (2016, 6. 14). 올해 서울공립학교 교사 1390명 선발... 작년보다 줄여. 뉴스1, http://news1.kr/articles/?2690253에서 검색.

(Translated in English) Kim, H. J. (2016, 6, 14). Seoul Public School Teacher Selection of 1390 ... Less than last year. New1, Search from http://news1.kr/articles/?2690253.

민혜리, 심미자, 윤희정 (2012). 한국형 수업컨설팅. 서울: 학이시습

(Translated in English) Min, H. R., Sim, M. J., Yun, H. J. (2012). *Korean Instruction consulting*. Seoul: hag-i siseub.

www.kci.go.kr

박창민, 조재성 (2016).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Translated in English) Park, CH. M., Cho, J. S. (2016). Research Theory and Methods. Paju: Academy Press.

백순근 (2000). 교육평가의 개념에 대한 고찰: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3(1), 1-20.

(Translated in English) Baek, S. G. (2000). Inquiry on the Concept of Educ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3*(1), 1-20.

백순근 (2002).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교육평가에 주는 시사. 아시아교육연구, 3(1), 27-42.

(Translated in English) Baek, S. G. (2002). Implications of Ecological Approach to Learning for Educational Evalu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3*(1), 27-42.

서윤경 (2009).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티칭의 효과와 운영 전략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271-297.

(Translated in English) Seo, Y. K. (2009). A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and Strategies on Microteaching for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4), 271-297.

소경희 (2004). 특수교육 초등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4), 469-490.

(Translated in English) So, G. H (2004). Practicum Experiences of Elementary Student Teachers in the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4), 469-490.

심현애, 김경연 (2012). 티칭포트폴리오를 통한 반성 활동에 관한 연구. 학습과학연구, 6(3), 43-71.

(Translated in English) Sim, H. A., Kin, K. Y. (2012). A study on the reflective activity with teaching portfolio: Analysis on th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awareness of instructional expertise,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6*(3), 43-71.

유영만 (2002). “학습”없는 e-learning과 “지식”없는 지식경영: 지식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e-learning과 지식경영의 본질과 지향성, 교육정보미디어연구, 8(3), 45-83.

(Translated in English) You, Y. M. (2002). e-learning without 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without knowledge: a knowledge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8*(3), 45-83.

유영만 (2008). 탈(脫)—ISD(Post-ISD)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

www.kci.go.kr

육공학연구, 24(2), 233-269.

(Translated in English) You, Y. M. (2008). A Critical Discourse on the Possibilities of and the Future Directions for Post-ISD Model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4*(2), 233-269.

이병준, 이유리 (2013). Mimesis이론 기반의 무용교육방법론탐색: Paul Ricoeur의 삼중미메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45(6), 81-102.

(Translated in English) Lee, H. J., Lee, Y. R. (2013). The Dance Education Methodology Research Based the Mimesis Theory - Revolved around the Triple Mimesis Theory of Paul Ricoeur.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45*(6), 81-102.

이상수, 강정찬, 이유나, 오영범 (2012). 체계적 수업분석을 통한 수업컨설팅.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S. S., Kang, J. C., Lee, Y. N., Oh, Y. B. (2012). *Instruction consulting through systematic class analysis*. Seoul: Hagjisa.

이상수 (2016). 지속적 수업개선을 위한 자기수업컨설팅 모형 탐색. 교육혁신연구, 26(3), 17-42.

(Translated in English) Lee, S. S. (2016). Exploring a Self-Consultation Model of Instruction for Continuous Instructional Impro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6(3), 17-42*.

이은택, 심규진, 유영만 (2016). 예비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 운영 사례: 자기수업컨설팅을 중심으로. 2016 한국교육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안동.

(Translated in English) Lee. E. T., Sim, Q. J., You, Y. M. (2016). A Case Study of Micro-Teaching Program for Strengthening Pre-service Teacher Capacity: Focusing on Self-Instruction Consulting. *2016 Korea Educational Technology Conference Fall Conference*, Andong.

이재호 (2008). 자아형성의 관점에서 본 리쾨르의 서사해석학. 도덕교육연구, 20(1), 49~75.

(Translated in English) Lee, J. H. (2008). A study of Paul Ricouer's Narrative Hermeneutics Based on the process of Self-becoming.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1), 49~75.

정석기, 조미희 (2015). 수업컨설팅의 이해와 적용. 서울: 박영Story.

(Translated in English) Jung, S. K., Cho, M. H. (2015). *The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effective in structional consulting*. Seoul: ParkYoung Story.

정창규, 강대일 (2016). 평가란 무엇인가. 서울: 에듀니티.

(Translated in English) Junn, C. K., Kang, D. L. (2016). *What is an evaluation?*. Seoul: Edunity.

www.kci.go.kr

조벽 (2012). 조벽 교수의 수업컨설팅: 대한민국 교사들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노하우. 서울: 해냄.

(Translated in English) Cho, B. (2012). *Professor JoBurn's Instruction Consulting: Know-how of Micro Teaching for Korean Teachers*. Seoul: Haenaem.

조대연 (2009). 교사 발달단계별 직무역량 요구분석: 서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365-385.

(Translated in English) Cho, D. Y. (2009). Need Analysis of Job Competence Based on Teacher Developm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2), 365-385.

조성민 (2009). 교사의 반성적 행동이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201-220.

(Translated in English) Cho, S. M. (2009).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ccording to the Teacher's Reflec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1), 201-220.

Amobi, F. A., Irwin, L. (2009). Implementing on-Campus Microteaching to Elicit Preservice Teachers' Reflection on Teaching Actions: Fresh Perspective on an Established Practice. *Journal of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9*(1), 27-34.

Bengtsson, J. (1995). What is reflection? On reflection in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eacher education. *Teachers and Teaching, 1*(1), 23-32.

Benton-Kupper, J. (2001). The microteaching experience: Student perspectives. *Education*, *121*, 830-835.

Boody, R. M. (2008). Teacher Reflection as Teacher Change, and Teacher Change as Moral Response. *Education, 128*(3), 498.

Borich, G. D. (2008). Observation Skills For Effective Teaching. NJ : Pearson/Merill Prentice Hall.

Butler, A. (2001). Preservice music teachers' conceptions of teaching effectiveness, microteaching experiences, and teaching performa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3), 258-272.

Capra, F. (2010). *The Tao of Physics An Exploration of the Parallels Between Modern Physics and Eastern Mysticism(5th)*. Boston : Shambhala.

Dewey. J. (1991). *How We Think*. New York: Prometheus Books.

Ferrance, E. (2000). *Action Research*. Rhode Island: Brown University.

Gunter, G., & Christoph, W. (1995). *Mimesis: culture, art,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www.kci.go.kr

california press.

Kirkpatrick, D. L. (1998).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2nd ed.).*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Kılıç, A. (2010). Learner-Centered Micro Teaching in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3*(1).

Koross, R. (2016). Micro Teaching an Efficient Technique for Learning Effective Teaching Skills: Pre-service Teacher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multidisciplinary studies*, *4*(3), 2890299.

Lewin, K. (1946).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 *Journal of social issues*, *2*(4), 34-46.

Polanyi, M. (1966). *Tacit dimensio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ollard, A. (2002). *Reflective teaching: Effective and evidence-informed professional practice*. London, England: Continuum.

Quinn, F. M. (1998). *Reflection and reflective practice. In Quinn (E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 nursing*. Cheltenham: Stanley Thornes.

Ricoeur, P. (1983). *Temps et recit 1*. Paris: Editions du Seuil. 김한식, 이경래 (역)(1999). **시간과 이야기 I**. 서울: 문학과 지성사.

Saban, A., Çoklar, A. N. (2013). Pre-Service Teachers' Opinions about the Micro-Teaching Method in Teaching Practice Classes. *TOJET: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2*(2). 1-1.

Scho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Shulman. L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3.

Smith, E. (2011). Teaching critical reflection.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6*(2), 211-223.

Strauss, A.,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논문접수: 2017. 01. 13 / 1차 수정본 접수: 2017. 04. 28 / 게재승인: 2017. 06. 21

www.kci.go.kr

반성적 성찰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운영 사례
-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중심으로 -

이 은 택 (한양대학교)
심 규 진 (한양대학교)
유 영 만†(한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수업행동' 평가 중심의 마이크로티칭에서 '반성적 성찰'개념이 포함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근본적으로 예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 도입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모형으로 충북 소재 C대학의 사범계열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의미 있는 다섯 가지 사실을 도출하였다. 첫째,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둘째, 전문가가 아닌 같은 눈높이의 동료들로부터 소통 가능한 환경에서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단계적 비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자신의 수업을 위한 설계, 매체제작 등 부가적인 '성과물'을 창출했고,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교과목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해 넓게 아는 것 또한 중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수업컨설팅이 현직교사영역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수업시연에 대한 고충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여실히 담아냈기 때문에 향후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새로운 관점을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자기수업컨설팅, 반성적 성찰, 마이크로티칭, 실행연구

† 교신저자 : 유영만, 한양대학교, 010000@hanynag.ac.kr

www.kci.go.kr